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12월

선교편지 제 105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렸던 '교사 자격증' 시험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장학 사역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했던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4년이 지나 금년에 마침내 20명이 졸업을 하고,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하여 자격증 시험을 치루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지원자의 약 30% 정도만 합격이 되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라서 내심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장학사역에 소속된 학생들이 재학했던 현지 대학교는 이곳 지방에서 가장 필요가 많은 '농업' 전문 대학이어서,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견주어야 하는 교사 자격증 시험에는 평균 이하가 될 것이라는 말 못할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부임하기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두 아들이 성장해 가며 치루는 많은 시험을 부모로서 전전긍긍하며 옆에서 기도로 뒷받침했던 기억이 새롭고, 이제는 아들이 장성하여 시험으로부터 조금 홀가분 해졌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역에 속한 20명이 졸업을 하고, 교사 자격 시험을 치루게 됨으로 인하여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긴장으로 지난 두 달을 기도하며 지나왔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장학사역에 속한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이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시고, 사용할지 궁금해 하며 지금까지 지나 왔는데, 마치 첫번째 뚜껑을 열어 궁금했던 내용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조한 가운데 발표 당일 아침, 장학생들의 발표 결과를 취합한 현지 교역자로부터 감격적인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덟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전화로 한명씩 합격자의 이름을 듣는 짧은 순간에 그 학생이 지나왔던 과정과 가정 환경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합격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년전만 하더라도 대학 입학은 커녕 간식으로 나누는 빵 한 조각에 싸우고 기뻐하던 철없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교사가 되어 가르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빨리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합격하지 못한 열두 명을 어떻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어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자 발표이후 첫 주일이 되어 모두 한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여덟 명을 축하한 것은 잠깐이고, 합격하지 못해 낙심 가운데 있는 열두 명을 위하여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잠시 낙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험을 치루었지만 합격하지 못한 '커어스틴'은 눈이 마주치자 마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9)**

교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여덟명 중에서 벌써 두 명은 디고스 내의 사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었고, 나머지 여섯 명도 인근 학교에 지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지 못한 열두 명은 내년에도 다시 시험을 치루겠다고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교사 자격증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자격증 준비 전문 학원'과 같은 곳에서 시험 대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격하지 못해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열두 명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사 자격증 합격자 발표로 인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와 장학 사역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저 그런 소망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있음을 모두들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학 사역에 속한 학생들도 소위 선배들의 놀라운 결실을 가까이에서 확인하며, 말씀 가운데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 사역을 통하여 말씀으로 잘 성장한 젊은이들이 새롭게 펼쳐질 삶의 현장에서 주의 제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푸릇 푸릇한 싹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장학사역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둘째 주에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절 예배를 위하여 약 한 달전부터 각 부서별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감사를 잘 표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의논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절기 예배나 행사를 준비할 때면, 현지 교역자들과 협의를 한 이후에 거의 일방적으로 교인들에게 각종 순서를 부탁하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절에는 각 부서별로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양하게 감사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배'의 순서를 위해서 현지 교역자에게만 준비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저를 포함하여 각 부서들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를 서로 모르는 가운데 연습하는 요일을 달리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한달여간 각종 즐거운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오페라'를 준비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고, 오래전 원주민 전통 복장으로 분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 왔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한 현지 '교역자'들에게도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고스 예일 교회는 세 명의 현지 교역자들이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데, 아쉽게도 같은 교회에서 늘 수고하는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는 많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절을 'Pastor Appreciation Day'로 정하고, 교인들에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하여 교역자를 위한 감사 카드와 선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4)**

마침내 기대 가운데, 감사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주일답게 온 교인들이 교회 대청소를 하고, 각종 꽃과 풍선등으로 교회 안과 밖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시작 한 시간 동안은 연간 진도표에 따라 성경 통독을 해 왔었는데, 이 날만큼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한 사람씩 앞에 나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하고, 마침내 감격하여 울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잘 준비된 찬양팀의 인도로 온 교우들이 감사로 가득한 찬양을 하나님께 힘껏 올려 드리며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아카펠라 (A cappella)'로 반주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넣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두 명의 장학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제직들이 자체 제작하고 연습한 '무언극'을 공연 하였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잘 준비된 설교 말씀과 같이 메시지가 얼마나 간결하고 분명했는지 모릅니다. 분장을 위해서 나이든 어른들이 여학생 교복을 입기도 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교인이 가장 나이 어린 역할을 하기도 해서 모든 이들에게 큰 웃음과 기쁨을 주어 감사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온 교인들에게 이미 광고를 한 바와 같이 'Pastor Appreciation Day'로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감사 카드와 선물을 디고스 예일 교회를 섬기는 세 교역자들에게 골고루 전달 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집에서 키우던 닭을 보자기에 담아서 가져 오기도 하고, 쌀, 과일과 같은 농산품 뿐만 아니라, 사진과 기도의 문구를 넣은 액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한 해동안 수고한 현지 '교역자'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현지 교역자들도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롭게 힘을 얻는 현지 교역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 온 교우들이 기다렸던 감사절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를 해서 맛있는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 했습니다. 한국 '김치' 맛을 알기 시작한 교인들의 요청으로 제 아내가 준비한 김치도 특별 메뉴에 포함 되었습니다. 모두들 든든히 먹고도, 집에 싸 가지고 갈 정도로 풍성하게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기억 납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의 온 교우들의 얼굴에 매주일이 '감사절 주일'만 같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한 해동안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동역자들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 2:5)**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